

< 라온아띠 3기 캄보디아팀 6월 활동보고서 >

# 캄팀의 순간들



작성자 : 라온아띠 곽동균

# 목 차

I. 개요

II. 라온아띠 프로젝트

1. 센터활동

2. 교육활동

III. 그 외 활동

IV. 맺음

## I. 개요

1. 활동 주체 : 라온아띠 3기 캄보디아팀(곽동균, 김정우, 반승아, 이하나, 정초이)
2. 활동 기간 : 2010년 6월 4일 ~ 2010년 7월 3일
3. 활동 장소 : 캄보디아 시엠립 다일공동체
4. 활동 스케줄은 5월 보고서와 동일함.

## II. 라온아띠 프로젝트

### 1. 센터활동

#### 1) 2010 라온아띠배 배구대회



2010년 6월 18일 캄보디아 국모생신에 다일비전센터에서는 2010 라온아띠배 배구대회가 열렸다.

대회 일주일전 홍보전단지를 만들어 각 마을을 돌아다니며 배구대회 개최를 알렸고, 1팀당 17세 미만의 선수 3명으로 총 8팀을 모집했다. 경기 규칙은 총 8개 팀이 토너먼트로 진행되며, 한 경기당 21점 한 세트로 진행되었다. 단 결승전은 15점 3세트로 진행되었다. 상품은 참가한 모든 팀에 배구공 1개씩 지급되고, 1등은 쌀 20kg, 2등은 닭 한 마리, 3등에게는 달걀 한판으로 준비하였다.

예선은 16일에 진행이 되었고, 4개 팀이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올랐다. 18일 대회 당일엔 준결승 및 결승 그리고 번외 경기로 한국 스텝과 캄보디아 스텝간의 경기를 가졌다.

예선을 거쳐 준결승에 올라온 팀들은 모두 박진감 넘치는 플레이와 페어플레이로 대회를 구경하러온 주민들에게 좋은 경기를 보여주었고 번외경기는 한국 스텝의 처절한 패배로 끝을 맺었다. 또한 대회 중간 중간 행운권 추첨을 통해 축구공, 옷, 신발, 학용품등의 여러 상품을 나누어 주어 구경을 하는 주민들에게 경기외의 다른 즐거움을 주었다.

라온아띠 배구대회는 예년과 같이 배구라는 운동 종목으로 지역 주민과 라온아띠와의 친목을 다지고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던 것 같다.

## 2)집짓기

6월에 접어들면서 많은 팀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다일 비전 센터로 찾아왔다. 그 팀들과 함께 캄팀은 지난 4월 강풍으로 인해 무너졌던 뜰레샵과 프놈크라움 주변 주민들의 집을 지어주고 있다. 집을 잃은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으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한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에 아쉬움이 남고 있다.

## 2. 교육활동

### 1) 쌀라아띠 (한국어 기초, 중급/ 영어 기초, 초급/ 컴퓨터)

쌀라아띠 2학기 개강이 한 달가량 지났다. 처음 적은 인원으로 시작한 쌀라아띠가 날이 갈수록 각 반마다 인원이 늘어 지금은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아띠들의 수업을 듣기 위해 찾아온다. 한국어 기초와 영어 기초 수업은 한 반에 각 80명과 40명이 넘는 인원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교실의 공간이 부족한 상태이다. 앞으로 지어질 쌀라아띠의 교실이 하루 빨리 만들어져 조금 더 넓고 나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받았으면 한다. 한국어 기초수업은 도서관에서 진행되는데 수업을 하기 전 아이들이 먼저 도서관에 찾아와 책을 읽고 공부를 함으로써 도서관의 이용률을 높이고 있다. 컴퓨터 수업은 수업을 듣고자 하는 인원들의 증가되어 한정된 컴퓨터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오후 수업 외에 교육 횟수를 늘려 오전, 오후로 2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쌀라아띠를 찾아오고 배우고자 하는데 이 교육이 단순 1회성 이벤트에 지나지 않고 지속 가능하도록 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띠들이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

## 2) 삼다아웃 현지고등학교

삼다아웃 고등학교 한국어 수업이 6월 28일부로 정규 수업이 종료되었고 고등학교는 기말고사 및 방학에 들어간다. 하지만 고등학교 중간고사 및 행사로 인해 목표로 했던 모음/ 자음 습득의 진도를 다 나가지 못해 방학 후 7월중 3번의 수업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 Ⅲ. 그 외 활동

### 1)비자트립

캠팀은 7월 1일~3일까지 태국 방콕으로 비자 트립을 다녀왔다. 오랜만에 팀원 모두가 함께 떠나는 여행이었고,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캄보디아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 태국의 문화와 전통을 알아보며 휴식을 즐기고 돌아왔다.

## IV. 맺음

이제 우리 캠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뜨거운 더위로 시작하여 뜨거운 가슴과 열정으로 지내오던 시간이 지나 이제는 뜨거운 눈물만 흘릴 시간만 남겨 둔 것 같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마무리를 또한 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후회를 남기지 않을 것 같다.

툭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기계화 삶속에서 나누는 것과 베푸는 것에 익숙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는 힘을 기르며, 나보다 우리를 생각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쌓아가며 변화되고 성숙해 가는 것 같다.

5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우리가 많은 것을 변화시키지도 실현시키지도 못했지만, 4기가 우리가 만들고자 했던 다리를 이어 갈 수 있도록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려한다.